

# 韓國의 自然保護 政策에 關한 小考(1)

## —均衡的 開發의 生態學的 接近—

建設部國土計劃調查研究團計劃委員  
(文公部 文化財專門委員)

閔 庚 玆※

### <目 次>

I. 序 論	2. 自然保護의 現況과 諸問題
II. 自然保護에 있어서 一般事項	3. 自然保護政策提起의 意義와 目標
1. 生態系속의 人間	1) 保護政策의 國家의 意義
2. 生産社會의 秩序	2) 保護政策의 指向 目標
3. 植物과 人間	
III. 韓國에 있어서 自然保護政策의 展開	
1. 自然保護의 史的背景	

## I. 序 論

自然은 資源으로서 人類生存의 「것줄」이고 空間으로서의 人類繁榮을 위한 「보금자리」이며 國家發展의 無限한 「基盤」이다. 人口의 急進的인 增加와 都市化 및 産業化의 加速化에 따라 隨伴되는 自然界와 人工界와의 사이에 不調和가 날로 深化되어 環境保全과 公害對策 人間性의 回復等이 世界的인 共通課題로 擡頭되고 있으며 「開發」이나 「保護」의 問題가 汎地球的인 環境時代를 맞아 더욱 深刻하게 論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加速的經濟成長으로 待望의 百億 弗輸出을 成功裡에 達成한 時點에서 다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앞두고 社會開發이란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을 높이기 위해서도 自然保護運動은 國家發展政策上 가장 緊要한 當面課題이다.

이런時點에 있어 本 研究는 自然界의 攝理와 生物社會의 秩序를 올바르게 認識하여 自然資源을 保全하고 均衡있는 國土開發을 推進하기 위

※ 國土開發技術士(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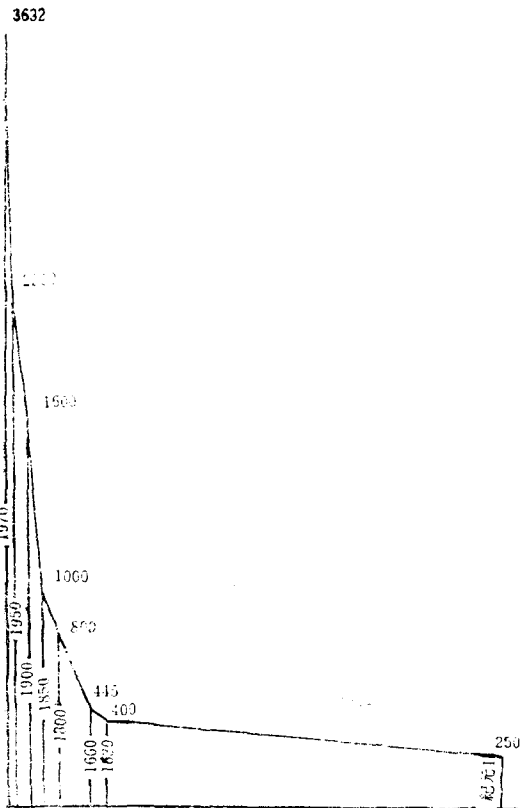
하여 우리나라의 自然保護現況과 問題點을 抽出하고 先進國의 自然保護施策에서 얻어진 敎訓을 바탕으로 自然保護政策의 方向과 目標을 設定하며 國土의 「綜合開發」이라는 次元에서 生態學的 接近方法을 摸索하고 自然保護의 主對象을 이루고 있는 林政施策等を 面談과 既存文獻을 中心으로 論議하여 小考로 다듬어 보았다.

## II. 自然保護에 있어서 一般事項

### 1. 生態系속의 人間

일찌기 아리스토텔레스는 「自然이란 天然의으로 스스로 갖추어져서 存在하는 모든 事物의 根源이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自然의 本質은 언젠가 살아서 움직이는 狀態라고 解釋된다.

이와같이 自然이란 生物과 그들의 生活空間인 環境을 總稱하는 것으로 精巧한 하나의 生態系(Ecosystem)를 이루고 있다. 自然의 生態系에는 光合成에 依해서 有機物을 生産하는 植物과 이를 먹이로 하는 動物, 動植物의 枯體나 遺體를 分解하여 다시 光合成에 利用될 수 있는 無機物로 遺元하는 微生物 등이 大氣, 물, 흙과



(圖 1) 世界人口增加率(單位 100萬人)

같은 無機의 環境과 相互關聯되어 生活하고 있다 自然界의 無數한 生物과 無生物사이에는 끊임 없는 에너지와 物質循環(生産—消費—分解—再生産)이 이루어지고 構成要素사이의 整然한 秩序를 維持하고 있다.

이와같은 生態界에서 人間이 차지하고 있는 位置와 人間에게 무엇을 提供하는가에 關聯하여 人間과 生態系와의 關係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人間은 生態系에서 獨立된 存在가 아니고 構成員의 一員에 不過하다. 에너지 循環과 먹이連鎖(Food Chain)過程에서 모든 構成要素는 그 어느하나도 제거될 수 없을뿐 아니라 構成員個體의 變化는 生態系內 다른 部分에 連鎖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둘째, 人間은 먹이連鎖의 一部인 同時에 그 頂上을 차지하고 있다. 最終消費者로서의 人間群이 爆發的으로 增加되고 있고 많은 먹이를 選擇的으로 消費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循環回路에 많은 負擔을 주거나

生態系의 維持에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세계, 人間은 地球生態系속에서 半獨立인 特殊生活樣式으로 發展하고 있다. 都市라는 人間의 密集된 生活空間은 自然界에서 찾아 볼 수 없는 特有의 物質代謝와 에너지의 「패턴」을 갖고 있으며, 이들 人間의 活動이 生態系에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기 때문에 人間生態系와 自然生態系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矛盾을 修正하지 않는다면 地球生態系의 崩壞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既述한 바와 같이 人間은 自然의 構成要素인 生物社會의 一員이라는 生態學的 本質을 慎重하게 받아들여 人間生活에 必要한 自然的基盤을 確保하고 生物社會의 秩序內에서 自然과의 調和를 維持하면서 國土의 開發事業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 2. 生物社會의 秩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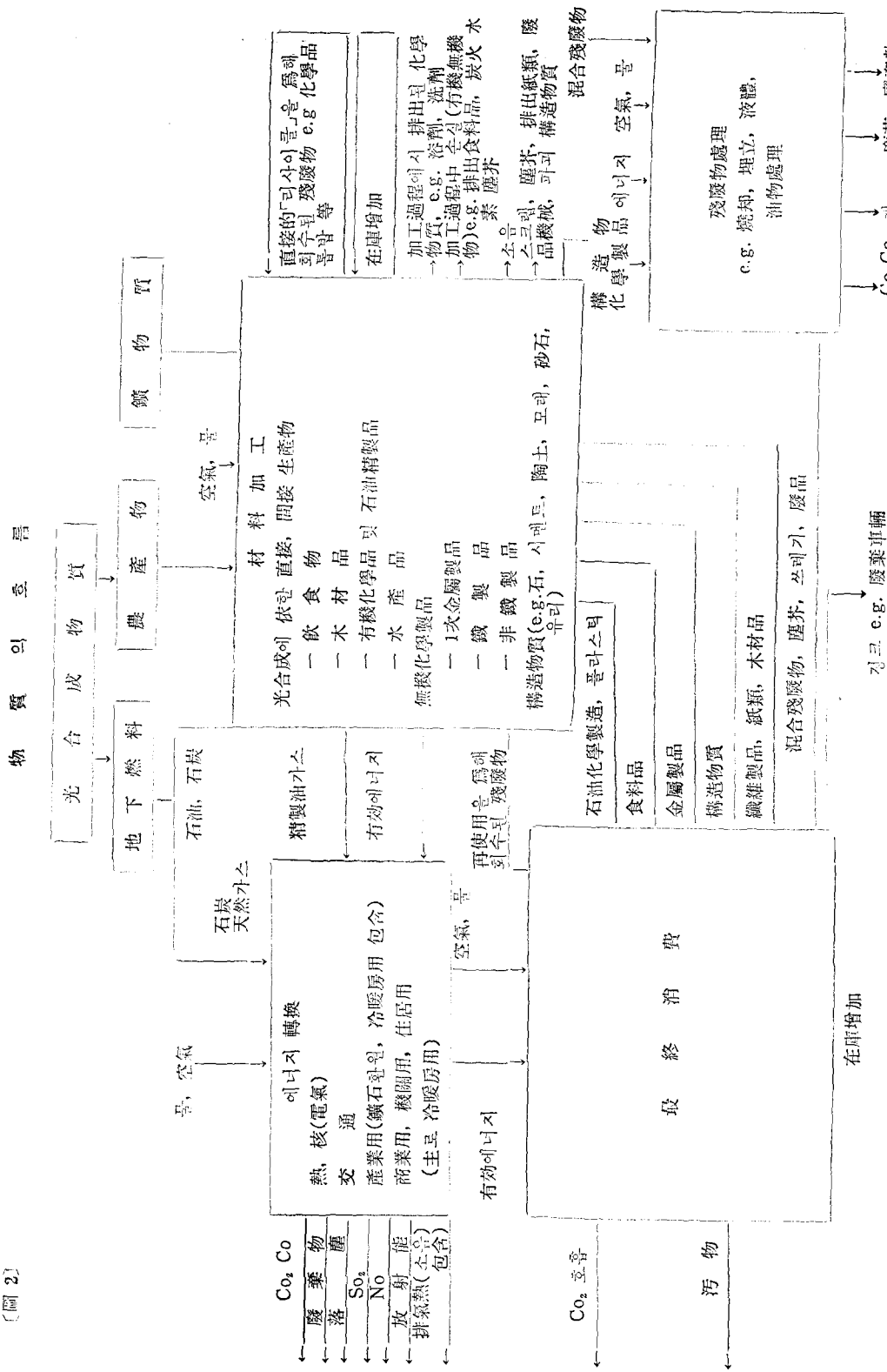
地球上의 모든 生物은 機能的으로 分業(生産—消費—分解)하면서 競爭과 共存關係를 維持하고 있는데 이를 生物社會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生物共同體는 外部要因이나 自體內部的 質的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限 生物共同體的 均衡이 維持된다.

最近 우리 周邊에서 소나무숲이 虫害를 받아 全滅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여러가지 植物이 混梢되어 多層植物社會를 이룬 自然林에서 그 被害度가 極히 적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으나 일단 植生이 破壞되어 單純林으로 退化되었을 境遇에는 生物共同體의 한 部分으로 潛在하고 있던 蟲나방이 爆發的으로 增殖되어 소나무林이 瞬息間에 全滅하게 된다.

이와같이 荒廢된 乾燥地에 植物이 侵入하여 土着化하고 다시 多層植物社會를 이루기에는 두가지 關門을 거쳐야하고 오랜 세월을 요하게 된다. 첫번째 關門은 植物群落의 「環境規制」即 氣候 土壤 人爲的 要因等 外的 秩序規制를 받게 되고 第二의 關門은 空間養分 「에너지」에 對한 生物相互間의 「競爭」과 「共存」等 社會的 秩序規制(內的 秩序規制)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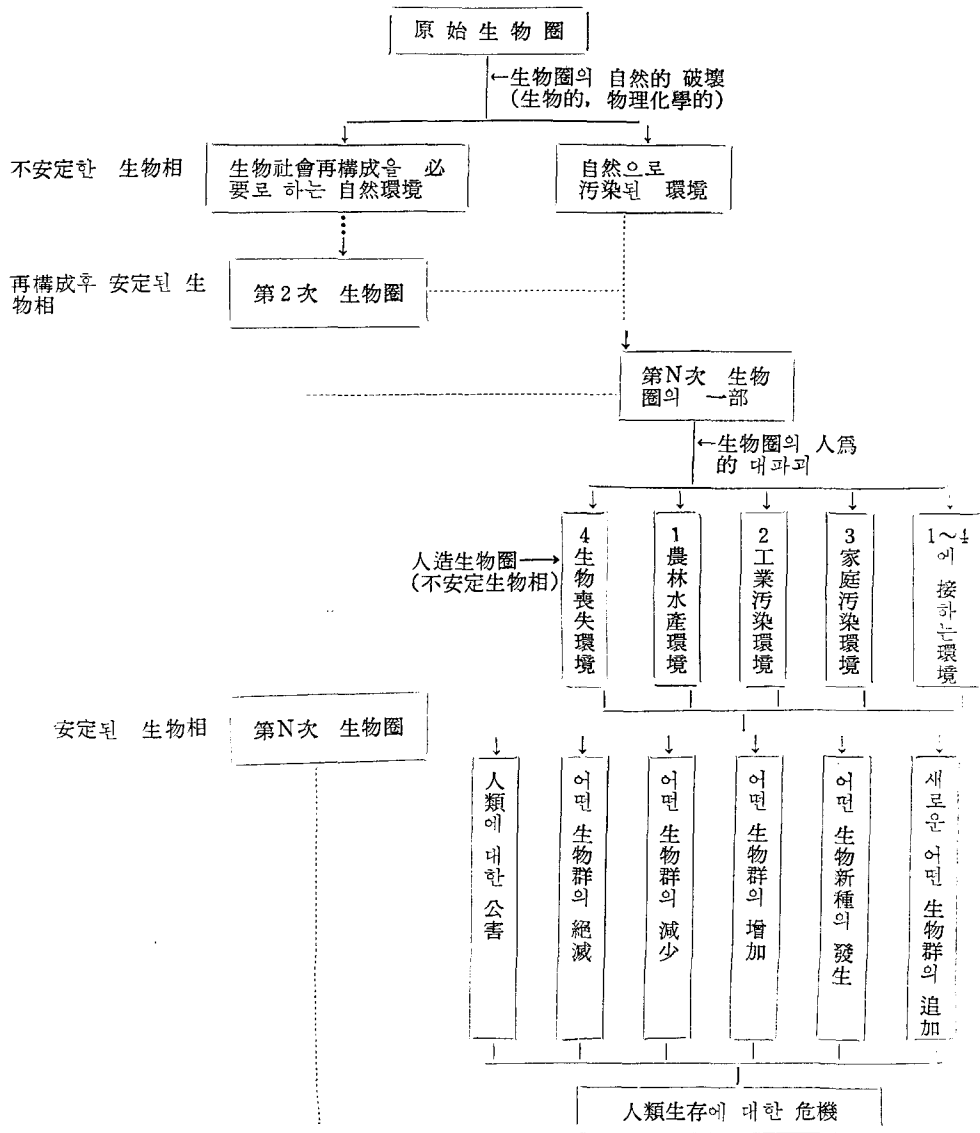
動物界에서도 벌의 一般的인 生態는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여기에서는 德裕山 國立公園에서 觀察한 事實로서 벌종속의 꿀을 탐낸 말

[圖 2]



資料: Allen V. Knees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lution, R. Dorfman & N.S. Dorfman, ed., Economics of the Environment, W.W. Norton & Co., Inc., 1972, p. 41.

[表 1] 生物圈에 있어서 自然破壞와 人爲的 破壞가 生物相의 安定度 및 人類의 장래에 미치는 影響 (安松, 1972)



벌두마리가 나타났다. 문을 지키던 벌 한마리가 안으로 들어가자.瞬息間에 다른벌들이 매지여나와 出入口를 막아버렸고 다른 동료벌들은 등위에서 끝까지 抗爭하므로써 몸집이 3배가 넘는 말벌도 하는수 없이 도망쳐가는 現象을 目擊할 수 있었다. 萬物의 靈長이라고 自處하고 『나만이 잘 살면된다』는 思考方式에 사로잡힌 우리人間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고 또한 배울 수 있었다. 英國의 詩人 william wordsworth (1770—1850)의 自然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한篇의 詩에서 보여주듯 봄에 싹트는 한그루의 나무에서 人間이 무엇인가를 배울수 있고 人間의 발아래를 기어다니는 작은 개미의 集團生活에서 生物社會의 秩序를 배워야 한다. 우리 人間도 生物社會의 一員으로 生態系의 秩序속에서 共存할 수 있다는 새로운 價値觀을 國民各自가 認識하므로써 繁榮된 韓國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自然保護運動의 基本目標이기도 한다.

### 3. 植物과 人間

人類의 文明은 숲을 利用하는데서부터 始作되었다. 이 地球上에는 25萬種(Species)에 가까운 많은 植物이 分希되고 있으며 人間은 숲에서 먹이와 建築材뿐 아니라 數많은 生活用品을 供給받아 安定되고 豊饒하게 살아왔다.

우리 周邊에서 急進적으로 減少되고 있는 自然資源을 効果적으로 保全하기 위하여 自然의 機構를 理解하는 것이 急先務이며 여기에서는 植物社會의 人間環境과의 空間的秩序와 時間的秩序로 나누어 살펴보기 한다.

植物群落의 空間的 秩序에 있어서 垂直的인것뿐 아니라 水平的으로도 生活空間確保를 위한 競爭이 이루어지고 있다. 森林社會를 垂直적으로 보면, 喬木層, 準喬木層, 灌木層, 草木層 鮮苔層等の 各階層사이에서 에너지와 生活空間의 競爭現象이 일어나고 있으며, 地下部인 根系에서도 같은 現象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一但 安定된 植物群落이 形成된 後에는 相互依存的 立場에서 共存狀態가 繼續된다.

우리 周邊 있는 自然林을 살펴보면 숲과 裸地와의 接境地에는 반드시 陽生의 灌木과 덩굴植物로 덮힌 特殊群落을 發見할 수 있는데 이를

林緣木本群落(mantelgesellschaft)이라고 부르며 其外側에 陽生의 草本植物로 된 草本群落(Saumgesellschaft)이 자라고 있다. 이들은 內部的 숲을 保護하는 機能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接合空間이 擴張될때 植生遷移를 일으킨 前進基地로서의 구실도 兼하고 있다. 林內에 道路가 開設되었을 경우 土砂流出 뿐아니라 바람과 強한 光線射入으로 林床이 乾燥하게 되고 바람에 依해 風倒木이 發生되는 등 森林內의 均衡이 破壞되며 植物이 枯死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自然與件(특히 地形과 植生狀態)을 同一視하여 劃一的인 開發을 피나가는 事例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같은 山이라하더라도 地形, 土壤, 高地, 氣候, 植物 動物相이 다를 뿐 아니라 이들이 複合的으로 相互連關되어 共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問題點이다. 흔히 陽樹인 赤松單純林이나 참나무林의 경우에는 林內에 林緣木本群落을 이룰 수 있는 植物이 下層植生을 이루고 있어 道路開設에 따른 被害가 적으며 3~5年內에 復元되기 때문에 別問題가 없으나 陽樹가 아닌 針葉樹林이나 植物種類가 多樣하게 混雜된 自然林과 高山地帶의 境遇 一但 破壞된 自然의 復元은 오랜歲月을 要하기 때문에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

植物社會도 人間社會와 마찬가지로 살아가지에 알맞게 環境改善運動이 끊임없이 繼續 되는데, 이와같은 植物의 動態를 遷移(Succession)라 부르며 植物社會의 『時間的秩序』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植物社會의 時間的變遷過程을 살펴보면, 土壤條件이 極히 不良한 熔岩이나 火山灰土에서는 最初로侵入하는 草本類의 種子가 雨期를 맞아 發芽된다 하더라도 그後 繼續되는 乾燥期에 시들게되고 이와같은 現象이 反復되어 土壤層이 形成하게 되면 비로서 草本類가 土着하게 된다. 그後 環境이 繼續적으로 改善되어 그 集團의 最適狀態가 마련되면 個體數가 爆發적으로 增加 되고 이때 多年生草本群落으로 變遷되며 灌木群落—陽性喬木林—陰性喬木林順으로 群落이 交代 되고 마침내 極盛相에 達하게 된다.

人間社會도 植物社會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社會形態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次代的

새로운 社會形態를 目標로하여 꾸준히 努力하고 있는 點이 비슷하다. 다만 이와같은 植物遷移過程에서 開拓者구실을 하게되는 先驅植物은 固有種이 있는 것이 아니며 주어진 土地條件에 따라 土着植物의 種類가 決定된다는 點과 植物社會의 初期發達過程에서 嚴格한 「競爭」속에서 「共存」現象을 이룬다는 事實은 우리에게 좋은 敎訓을 남기고 있다.

### Ⅲ. 韓國에 있어서 自然保護政策의 展開

#### 1. 自然保護의 史的背景

우리나라의 國土는 山岳이 많고 南에서 北으로 가로놓여 生物相이 多樣하고 季節의 變化美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綿繡江山이라 불리워왔으며 自然崇拜思想이 그어느나라 國民보다도 뚜렷하고 自然과 더불어 살아온 民族의 傳統을 지니고 있다. 歷史적으로 살펴보면 新羅의 花郎制度는 全國의 各山과 景勝地를 찾아 心身を 段鍊하고 愛國心を 배우며 武術을 研磨하였다. 또한 그들의 손으로 아름다운 自然을 造成하였다는 옛 記錄「金蘭境有寒松亭 昔四仙耶遊 其徒三千 各植一株 至今倉倉然拂雲 破閑集卷中」을 보더라도 우리 歷上들이 얼마나 自然을 아끼고 가꾸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高麗史에 의하면 16代 賓宗 (1107)은 3月條에서 「詔曰 當萬物 發生之時 不麇不卵者 實禮典之成規 而先王之仁政也」 「田獵無時 或農夫火耕 延燒物命 有乘對時育物之義 足傷 天地之和 一切禁斷 違者罪之」라하여 모든 萬物이 發生하는 時節에 달이나 새끼를 품고있는 새나 짐승을 죽이지 않은 것은 실로 禮典의 法規이며 先王의 어진 政策이었다 때없이 사냥을하거나 농부들이 火田을 풀어 生物을 延燒시켜 제철따라 萬物이 發育하는 뜻에 어긋남이있어 天地의 調和를 해치는 일은 一切 禁하게하고 어기는者는 엄벌을하라는詔書를 보더라도 山林保護는 勿論 野生動物保護에 까지 힘써왔음을 알 수 있다. 李朝初期에 있어 어서도 山林에 관한 規定 植栽勸獎 山林保護等 林制의 實踐이 經國大典 (1469)에 記錄되어 있다.

李朝後期の 正祖때에는 「松禁節目」을 반포하

여 沿海岸 30里地域은 비롯 私有林이라 할지도 伐採를 禁하였으며 王命으로 293 個所의 山林을 封禁區域(自然保護區域)으로 指定하는等 果敢한 自然保護處置를 한 바 있다.

또한 高宗때에는 「大典會通」(1869)에서 從來의 封禁政策을 強化함으로써 全國土의 73%에 達한 1,260萬町步의 울창한 山林을 保全할수 있었으며 鴨綠江과 豆滿江流域에는 많은 原始林이 保存되었고 마을마다 老巨樹와 銘木이 우거져 災難으로부터 마을을 保護하는 宇護林의 구실을 다 하였다.

또한 모든 開發事業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自然을 征服하는 立場이 아니고 어떻게하면 自然과 調和시키느냐에 더 많은 努力을 기울린 흔적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新羅時代에 建造한 塔하나만 보더라도 周圍 30里 前後方의 山勢地形 植生等を 살펴 塔의 모양 크기 質感과 位置를 定하였기때문에 어디서보아도 周圍與件과 無理없이 調和되어 보이며 自然과 人工物의 融合에서 얻어진 仙景을 이루고 있다.

李朝時代에 造成한 昌德宮 禁苑(秘苑)의 경우 苑內에 架設된 數많은 樓閣이나 亭子 兪곳 苑路에 이르는 人工構造物 하나하나가 陰陽의 攝理에 따라 自然속에 파고들어 開發과 保存의 均衡을 維持하고있는 代表的 文化遺産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法律에 의한 本格的인 自然保護事業은 寶物古蹟 名勝 天然紀念物保存令 (勅令 224號 1933. 8. 8 全文 7條 및 附則)이 公布되면서 始作되었다.

같은해 12月 12日에는 寶物 古蹟 名勝 天然紀念物保存會議가 構成되어 動植物學 地質學 鑛物學을 專功한 日人學者 5名을 包含한 18名의 委員이 任命되었으며 第1回 自然保存會가 召集되어 動物5件 植物11件이 天然紀念物로 처음 指定公布되었으며 1943년에는 古蹟4件 名勝 및 天然紀念物 2件 天然保護區域1件 天然紀念物 145件이 指定되어 法的 保護를 받게되었다.

1945年 8·15以後 美軍政이 實施된 後에도 日政때의 保存令으로 그대로 繼承되었으며 1948年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어 1960年에 이르기까지 天然紀念物 植物 7種이 追加指定公布되었다.

1961年 山林法(法律881號)이 公布되어 山林保護와 保安林制度를 強化하였고 1962년에는 文化財保護法(法律961號)이 公布되어 그동안 많은 文化財가 復元되었으며 77年末現在 史蹟 250件 古蹟 및 名勝 10件 天然紀念物 256種으로 擴大되어 保護되고 있다.

自然保護와 關聯된 法制를 살펴보면 國土建設 綜合計劃法을 비롯하여 公園法(1967年 智異山이 첫 國立公園으로 指定되었으며 現在 12個 國立公園이 指定됨) 公有水面管理法 公害防止法, 水產業法, 河川法, 漁業 및 資源保全法 鳥獸保護 및 狩獵에 關한 法律, 火田整理에 關한 法律 砂防事業法, 汚物清掃法 農耕地造成法等이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民間團體에 依한 自然保護 運動은 1963年 韓國 自然 및 自然資源保存 學術 調查委員會(1974 韓國自然保存協會로 改稱)가 처음으로 設立되었으며 1966년에는 國際自然保存 聯盟(IUCN)에 加入하였다.

## 2. 自然保護의 現況과 諸問題

最近 우리經濟의 눈부신發展과 科學技術의 高度化에 따라 自然破壞의 手段도 多樣化되고 大規模化되고 있다.

人口의 都市集中에서 오는 密集 住宅街의 擴散 都心地의 高層建物의 密集化에 따른 空地의 減少 自動車の 排氣게스에 依한 既存植物의 消滅 都市人의 無秩序한 過度利用으로 都市近郊의 山林도 荒廢되고 있다.

自然에의 동경심에서 屋內生活空間에 裝飾되고 있는 花鉢植物마저도 人間의 사랑과 關心不足으로 消耗品化되고 있는 것을 볼때마다 서글픈 生覺이 든다. 이와같은 現象은 富裕層에 있는 사람이 더욱甚한 지도 모른다.

1966年 서울市에(꽃심기運動)을 建議하여 中央廳 南大門사이의 中央分離帶에 아름다운 花壇이 처음으로 登場되었을때 짓밟거나 뽑아버리지 않자 念慮하였으나 한구루도 뽑아버린곳을 發見하지 못하였으며 板子집에 살면서 버려진 깡통에 한포기 꽃이나마 가꾸어보려는 精誠스런 市民의 努力을 흔히 볼수있다. 大都市의 境遇 住宅을 늘려야하고 길을 넓히고 上下水道를 架設하는등 都

市開發上的 어려움과 땅값이 비싸다는 原因도 있겠으나 올바른 認識不足때문에 우리生活周邊에서 公園綠地를 거이 볼수없게 되었다.

住宅 上下水道 못지않게 都市機能上은 勿論 우리人間을 保護하는 보급자로서 必要하다는 認識을 조금이라도 갖었더라면 既存市街地를 再開發하여 公園綠地를 만들어야하는 社會的混亂과 財政上的 浪費는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點에서 政策擔當者는 勿論 土木 建築 都市計劃家들이 깊이 反省하여야 할것이다.

公害工場의 無計劃的인 河川邊 立地等으로 水質汚染에 따른 各種公害現象이 전국에 擴散되고 있으며 工業都市의 內陸化에 따라 工場이나 住宅이 農地를 둘러쌓게 되어 市街地라는 人工系가 自然系나 半自然系를 둘러싸는 格이 되었다.

外觀上 綠地에 둘러쌓인 農村의 境遇 이제까지 가장 손쉽게 栽培되어온 콩科植物마저 農藥을 뿌려져 않으면 열매를 收獲할수 없을 程度로 生物社會의 有機的인 秩序와 物質循環의 흐름이 破壞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年 第1次經濟開發 5年計劃에 着手한 以來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先經濟開發 後社會福祉라는 擇一的인 立場을 取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特히 南北이 分斷된 狀態下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輸出 百億弗 高地를 앞당겨 達成하고 第4次 經濟開發 5年計劃에서도 持續的인 高度의 經濟成長을 主軸으로하여 人間生活의 質的向上을 위한 여러가지 社會福祉政策을 同時에 推進하고 있다. 우리人間이 시도하는 모든 開發事業은 土地를 바탕으로 한 自然에서 出發되고있으며 「自然」은 數많은 復合要因에 依해서 끊임없이 變動하고 때문에 우리人間이 願하는 方向으로만 움직여 주지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우리 人間의 欲求意識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自己立場만을 내세우는 境遇도 흔히 있게 된다.

코끼리의 다리만을 단적 본 경우 기둥과 같다고 主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農耕地를 擴大하여 食糧增産을 달고 있는 立場에서는 한치의 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山地를 大面積으로 開

懇하려 할 것이고 林業의 立場에서는 肥沃한 平地에서 短伐期用材生産으로 收益性を 높이고 地域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大單位皆伐造林을 實施한바도 있다. 눈앞의 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沿岸海草帶에 産卵하려 밀려드는 고기를 마구 잡아 왔고 汚染된 水域에서 잡힌 寄型魚가 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다.

또한 國土開發이라는 美名下에 必要以上の 國土毀損과 豫算의 浪費를 겪어왔으며 觀光地開發이라 하여 觀光對象物 가까이 無理하게 車道를 부설한다든가 觀光主對象物과는 比較도 안 될 異質의인 大型 人工建造物을 築造하는 式의 物理的인 開發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다.

植物의 生命體인 하나의 「胚」를 싹트게 하기 위해서는 알맞는 溫度, 水分, 光線 微生物…… 등이 必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事實이다. 그러나 어떤 植物이든간에 溫度, 光線, 微生物만 作用하였을 경우에는 發芽되지 않고 시들게 된다.

發芽에 作用되는 여러가지 要因이 復合的으로 作用하느냐를 알아야 한다.

經濟性만 앞세운 大團地造林이 成功할리 없으며 많은 費用을 들여 土壤의 精密調査結果 適合하다고해서 野山開懇事業이 成功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植生과 土壤속의 動物과 微生物이 共存하여 相互保護下에서 維持되어온 土壤의 生産力은 大面積의 開懇에 依해 바람과 강한 日射 乾煤, 降雨時의 表土流 失等으로 土壤化學의 性質은 勿論 절대시해온 土壤의 機械的性質마저도 急變되어 生産力이 低下되거나 不毛地化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國土를 有効하게 活用해야 할 宿命的인 課題를 저마릴 수는 없다.

또한 不可能한 것도 결코 아니다. 가까운 日本의 吉野林業地帶는 傾斜가 急하고 表土도 얇은 不良林地였으나 人間의 後天的인 開發方法(造林撫育技術)이 自然的이고 科學的이었기 때문에 삼나무(杉)의 大徑木을 生産하여 世界的인 林業地帶로 發展시킬 수 있었다.

흙이거의 없는 바위틈에 떨어진 솔씨가 싹이 더서 100餘年이 넘도록 생생하게 자라고 있는 것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조그만 바위 하나만의 힘에 의해 소나무를 자라게한 것은 결코 아니며, 周邊環境의 保護가 더 重要한 구실을 하였다는 事實을 銘心하여야할 것이다.

百億弗輸出 達成의 해인 1977年 10月 13日 朴正熙大統 께서는 月例經濟動向報告席上에서 「우리江山의 아름다운 景觀을 지키고 自然을 保護하기위해 汎國民的인 自然保護運動을 積極推進할 것일」 指示하였다.

우리는 第4次經濟開發5 個年計劃을 成功裡에 推進하고 歷史的인 維新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政街에만 依存하여서도 아니되고 한사람의 傍觀者가 있을수도 없으며 國民總和的인 智慧와 忍耐力로서 高度의 福祉社會 建設에 國民스스로가 自發的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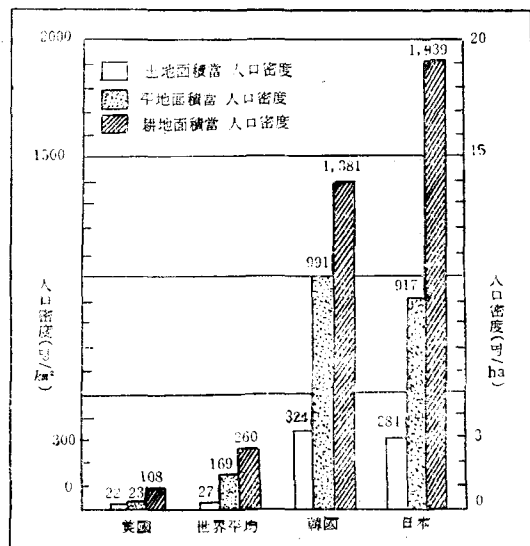
### 3. 自然保護政策提起의 意義와 目標

#### 1) 保護政策의 國家的意義

最近自然保護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自然의 保存(Preservation)과 保全(Conservation) 保護(Protection)와 復元(Restration)이라는 각기 多少 뜻이다른 用語를 便宜上總稱하여 自然保護라부르고 있다. 從來의 無計劃的인 自然破壞

[圖 3]

世界의 國土面積, 平地面積 및 耕地面積當 人口密度 比較





에서 自然을 保護하여 自然資源을 永續的으로 利用하는것이 自然保護의 基本思想이다. 다만 自然保護라하여 純粹保存(Preservation)만 내세워 生活資源의 不足等으로 犧牲을 強要해서는 안될 것이며 自然에서 배운 人間의 智慧와 努力에 依해서 自然을 最大限保全하여 有形無形의 自然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우리는 좁은 國土가 南北으로 分斷된 狀態에서 世界的으로 그 類例를 찾아 볼 수 없는 程度의 많은 人口가 살고 있다.

一次的으로 急增하는 人口의 食生活을 解決하기 위하여 山地開發(農地擴張)을 시도하였으며 都市開發—産業開發—國土開發—地域開發—觀光開發 등이 環境問題를 고려할 겨를없이 經濟成長의 中心으로 推進되어왔다.

「開發」이나 「保護」나의 判斷基準은 한나라의 社會및 經濟的與件은 勿論 國土가 지닌 立地與件에 따라 달라진다. 結局 어느쪽이 恒久的인 國民의 福祉에 寄與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土地를 基盤으로하는 모든 産業이 自然保護的인 配慮가 없다면 生物社會의 生存基盤이 破壞되고 産業自體도 永續性を 잃게될 것으로 同一土地에서 繼續的인 生産을 願한다면 自然保護의 基本立場을 固守한 技術開發과 施業方法을 疎나가야할 것으로 林業은 勿論 農業, 水産業 그리고 自然資源을 바탕으로한 觀光, Recreation 産業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다.

産業革命(1770)을 起點으로 蒸氣機關車가 出現되고 機械工業의 急進的인 發達에서 달나라에 人間을 着陸시킨 美國의 아폴로計劃의 成功(1968)에 이르는 經濟萬能時代속에서 우리는 人間의 功過를 잘 보아왔다.

바야흐로 環境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 韓國의 自然保護政策의 基本方向은 「多目的利用을 前提로한 自然의 保全 (Conservation)」에 두어야 한다. 生態系의 흐름속에 끼어 物質循環의 動的平衡狀態를 維持하면서 人間이 必要로한 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새로운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開發과 保存의 均衡을 維持하여야 할 것이다.

## 2) 保護政策의 指向目標

自然保護政策의 一般的 目標은 自然을 保護하여 健全한 生活環境을 보전하고 衣·食·住에

必要한 資源의 供給과 國土保存에 依한 公益的 機能을 強化하여 레크레이션 教育 및 研究 등 生活의 質을 向上시키는데 있다.

### ① 自然保護運動을 生活화한다.

國民에게 올바른 自然觀과 自然資源의 保全에 關한 知識을 普及시키고 그 重要性을 認識시켜 줄기로운 價値觀의 定立과 새로운 社會秩序를 確立한다.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國民自然敎書를 알기 쉽게 體系化하여 널리 普及하고, 自然保護憲章制定, 各級學校와 教育機關에서의 自然保護敎育化 내집·내마을 綠化, 財閥들의 自然保護事業의 積極參與等 自然保護를 위한 汎國民運動의 生活化를 強力하게 推進한다.

### ② 自然資源을 積極保存한다.

滅種危機에 놓여있는 生物의 保存(特定種類의 保護)과 天然林의 原始的保存(集團의 原狀保存)을 비롯하여 秀麗한 自然景觀과 天然紀念物等 文化財를 保存하고 特定自然保護地域의 設定과 水資源및 山林資源을 積極保全하여 人間과 自然과의 生態學的 聯關性을 究明하고 生活環境을 積極保護한다.

### ③ 새로운 國土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하고 法體制를 刷新整備한다.

自然과 人間環境과의 調和가 이룩된 快適하고 文化的인 生活環境을 綜合的으로 整備하기 위하여 새로운 國土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한다.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現行 國土綜合開發法을 전면 補完하고 自然環境보전法의 制定과 國土綜合開發研究所를 設置하여 國土開發에 必要한 綜合的인 調查研究事業을 強化한다

### ④ 自然公園의 效果의 利用과 自然의 復元

國民의 餘暇空間의 需要增大에 對處하고 餘暇活動의 質的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國民自然敎育園과 森林休養公園을 造成하고 分散되어있는 國立公園을 連結하는 自然步道公園을 開發하는 同時에 觀光遊園地綠化 陷損된 自然景觀의 復元等·自然保護運動을 積極推進한다.

### ⑤ 林業經營을 科學化하여 森林의 効用을 多目的化한다.

國土綜合開發計劃이 活潑히 推進됨에 따라 山林囤積이 繼續減少되는데 反하여 人口增加에 따

큰 林産物의 需要增加와 함께 公益的 福祉機能이 繼續增大될 것으로 生態學的 育林技術의 開發과 保護管理體制의 改善 森林의 公益的 効用의 定量的 評價 등으로 林業經營을 科學化하고 多目的 化한다.

⑥ 自然을 淨化하고 環境公害를 積極豫防한다

大氣 및 水質 土壤汚染과 汚物 騒音等 公害防止를 위한 法體制의 整備와 함께 被害發生者 費用負擔制를 極強化하고 自然景觀의 利用者 費用負擔制를 再檢討하여 過剩利用을 막고 自然을 淨化한다.